

시사원정대 NIE 2022-12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주 수업 계획표

1주 수업 내용

2주 수업 계획표

2주 수업 내용

3주 수업 계획표

3주 수업 내용

4주 수업 계획표

4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2)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차 산업혁명시대와 필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4)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리딩북(별책부록)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뉴스, 신문의 사설·칼럼·기사를 10대 눈높이에 맞춰 정리합니다. 읽기 능력과 논리력,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5) 리치북(책 속 부록)

최신 주목 받았던 경제 이슈 중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금융경제 상식을 쌓고 자신의 생활에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4주 수업 계획표

| | | | |
|-------|--|--|----|
| 단원 | 시사원정대 NIE 12월호 4주 (90분) | | |
| 학습 목표 | 한국계 미국 의원의 역할과 영향력을 이해한다.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안다. 연반인의 방송 출연에 관해 장단점을 생각해 본다. | | |
| 활동 초점 | - 한국계 미국 의원의 임무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한다. - 변호사를 고용할 때 내는 수임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해한다. - 최근 연반인이 주목받는 이유를 알고 부작용은 없는지 생각해 본다. | | |
| 구분 | 중심 활동과 내용 | 교사 활동 초점 | 분 |
| 열기 |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 테스트 | - 기회는 공정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 5 |
| 펼치기 | -리딩북(별책부록) 18~23 맞춤칼럼 고급 - 한국계 미국 의원의 힘 | - 미국의 의회 구성 - 한국계 미국 의원의 임무와 역할 | 20 |
| | - 72~75 미디어 속 경제 -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속 경제, 변호사 수임료 | - 변호사 고용법 - 수임료의 가격 변화 | 40 |
| | - 114~115 엔터 특특 - 요즘 예능 접수하는 '연반인'들 | - 연반인의 뜻과 역할 - 연반인 방송 출연의 빛과 그림자 | |
| 마무리 |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 - 즐겨 보는 드라마나 웹툰 주인공 중에서 내가 변호해 주고 싶은 캐릭터를 골라 이유와 함께 이야기해 보자. | 20 |

[4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 | | | |
|-------|---|--|----|
| 단원 | 시사원정대 NIE 12월호 4주 | | |
| 학습 목표 |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안다. 연반인의 방송 출연에 관해 장단점을 생각해 본다. | | |
| 활동 초점 | - 변호사를 고용할 때 내는 수임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해한다. - 최근 연반인이 주목받는 이유를 알고 부작용은 없는지 생각해 본다. | | |
| 구분 | 중심 활동과 내용 | 교사 활동 초점 | 분 |
| 열기 |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 퀴즈로 어휘 테스트 | - 기회는 공정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 5 |
| 펼치기 | - 72~75 미디어 속 경제 -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속 경제, 변호사 수임료 | - 변호사 고용법 - 수임료의 가격 변화 | 20 |
| | - 114~115 엔터 특특 - 요즘 예능 접수하는 '연반인'들 | - 연반인의 뜻과 역할 - 연반인 방송 출연의 빛과 그림자 | 10 |
| 마무리 | - 다음 주 수업 예고, -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활동 안내 | - 즐겨 보는 드라마나 웹툰 주인공 중에서 내가 변호해 주고 싶은 캐릭터를 골라 이유와 함께 이야기해 보자. | 5 |

맞춤칼럼 고급

한국계 미국 의원의 힘

<어휘 UP>

입지전적: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노력해 목적을 달성한 기록을 가짐.

연임: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 다시 계속 그 직위에 머무름.

입법: 법을 제안하고 정함.

혐오 범죄: 인종, 성별, 국적, 종교 등을 기준으로 특정 집단에 가해지는 범죄.

배타적: 남을 따돌리거나 거부해서 밀어 내침.

원내대표: 국회 교섭 단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탄핵: 국회에서 소를 제기해서 대통령 같은 고위급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해 해임하거나 처벌함.

축출: 쫓아내거나 몰아냄.

<발문>

1. 우리나라 국회의사당과 미국 연방의회 건물을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2. 한국계 미국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하는 역할 3가지를 적어보자.

<교사 참고자료>

美한국계 후보들 중간선거 경선서 선전...한인 정치력 확장 속도낼까

미국 중간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방 의회와 주지사 등 주요 후보들의 대진표 윤곽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계 후보들도 경선에서 선전하고 있다. 2020년 선거에서 4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한 데 이어 올해 중간선거에선 연방하원은 물론 각 주정부 주요 선출직에 한국계 정치인들이 상당수 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등 재미동포 유권자가 많은 지역 외의 다른 주로도 한국계 후보들의 도전이 늘어나고 있다.

● 하와이 부지사 후보도 한국계

미주한인정치연합(KAPA)에 따르면 11월 8일 중간선거 후보로 확정된 한국계 후보는 모두 23명(16일 기준)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원의원 34석과 하원의원 435석, 36개주 주지사와 부지사, 46개주 의회 의원, 시장 등 주요 선출직을 뽑는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는 5명의 한국계 정치인이 후보로 나선다. 민주당 앤디 김(뉴저지)-메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 하원의원과 공화당 영김(캘리포니아)-미셸 박스틸(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은 모두 경선 등을 통해 후보로 확정됐다. 앤디 김 의원은 3선, 다른 3명의 현역 의원들은 재선에 도전한다.

이들 한국계 의원 4명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34지구 하원의원 선거에는 데이비드 김 민주당 후보가 나선다. 변호사 출신인 김 후보는 6월 치러진 오픈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현역 의원인 민주당 지미 고메스 의원에 이어 2위로 중간선거 본선에 진출했다.

미 연방 하원에 처음 진출한 한국계 정치인은 1992년 당선된 김창준 전 의원(공화당)이다. 이후 2018년 앤디 김 의원이 하원에 입성했다. 2020년에 3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추가로 당선되는데 이어, 올해 선거에서도 한국계 하원의원의 대거 선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지사 선거에선 민주당의 실비아 장 루크 하와이주 하원의원이 13일 하와이 부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하와이 표심을 고려하면 첫 한국계 부지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루크 후보가 주지사에 이은 주정부 권력서열 2위인 부지사에 당선되면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통틀어 최고위 선출직에 오르게 된다.

● 한인 정치력, 여러 주로 확산

이번 중간선거에서 새로운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46개주 주의회 선거에도 한국계 후보 12명이 나선다. 한인 동포들이 밀집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3명, 조지아주와 하와이주, 일리노이주에선 각 2명씩 한국계 후보들이 나선다. 특히 조지아주에선 2018년 대선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합동 기조연설에 나섰던 샘 박 의원(37)이 4선에 도전한다.

올해 중간선거에선 한인동포가 많은 캘리포니아, 조지아 외의 지역에서도 한국계 후보들의 출마가 늘었다. 워싱턴주와 위스콘신주, 텍사스주, 뉴욕주, 미주리주 의회에 각 1명씩의 한국계 후보들이 주 의회 진출에 도전했다. 헬렌 짐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의원과 이상현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시의원은 각각 필라델피아 시장과 페어팩스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2008년 한인 최초로 캘리포니아 어바인시에서 직선 시장에 당선됐던 강석희 미주한인정치연합 이사장은 “연방하원 의원 4명을 배출한 2020년 선거가 한인 정치력 신장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한인 정치력 확장에 속도를 내는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22-08-17]

미디어 속 경제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속 경제, 변호사 수입료

<어휘 UP>

선임: 어떤 임무나 직무를 먼저 맡음.

수임료: 맡긴 사건을 처리해 준 대가로 지불하는 돈.

민사사건: 개인 사이의 갈등이 중심이 되는 사건.

박리다매(薄利多賣): 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 파는 것.

법치국가: 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나라.

<발문>

1.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사해 발표해 보자.
2. 국민들이 변호사 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받으려면 어떤 도구나 서비스가 마련되면 좋을지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구상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변협, 무료로 변호사 정보 검색해 선임할 수 있는 사이트 출시

누구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무료로 분야별, 지역별 변호사 정보를 검색한 뒤 전화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30일 개시됐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공동으로 개발한 온라인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를 열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대한변협 측은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는 중개료·수수료·광고료 등 변호사와 일반인 모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며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공익적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이트 내에서 변호사 정보와 업무 사례를 검색하는 것은 무료"라고 설명했다. 일반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이 홈페이지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놓

는 것도 무료다.

● 4200명 변호사 정보 등록...승소 사례, 학력 등 증빙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에 방문한 일반인은 별도로 회원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등록된 모든 변호사의 정보를 볼 수 있다. 대한변협은 29일 기준 2만6328명의 변호사가 자신을 등록했고 이중 사무실 연락처, 전문분야, 학력, 경력 등 구체적인 정보를 등록하겠다고 동의한 변호사는 42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www.klaw.or.kr)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지역, 분야, 사례, 또는 변호사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변호사들이 나온다. '상세검색'을 통해 지역을 설정할 수 있고 분야도 1차 분야인 민사, 형사, 상사, 가사, 행정법, 헌법, 파산 회생, 노동, 조세, 지적재산 중 한 가지를 선택한 뒤 2차 분야로 더 세부적인 분야를 설정해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동작구로 지역을 설정한 뒤 1차 분야로 형사를 선택하고 2차 분야로 일반형사, 성폭력, 학교 폭력, 군 형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검색 결과에 나온다.

'나의 변호사'를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처럼 소개글을 작성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검색한 변호사의 나이, 자격시험, 전문분야, 내선 전화번호, 휴대 전화, 사무실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 법조 경력, 업무 사례, 방송 및 신문 기사에 등장한 사례, 저서 등을 자세히 등록해놓는 변호사들도 많다. 특히 자신이 사건을 맡아 승소한 사례는 판결문을 등록해놓고 이용자들이 실제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게 했다. 검색 결과에서 어느 변호사가 상단에 노출되는지는 무작위로 정해진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장점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소개글에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증도 실시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각자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 등을 활용해 허위 사실을 올려놓는 것을 막고 있다"며 "법조 경력이나 학력 등도 검증하는데, 대학원

등은 졸업증이나 수료증, 학위 수여증 등을 제출해서 운영진이 이를 검증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 수임료는 비공개에 상담 후 결정...징계 내역 없어

필요한 분야에서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찾은 이용자는 해당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맡길 수 있다. 다만 변호사 수임료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이용자가 변호사와 따로 상담을 한 뒤 결정한다. 대한변협 측은 “수임료를 공개하기 시작하면 저가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변호사들에게 지나친 저가 수임 경쟁을 불러일으킬뿐더러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다”며 “저가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는 ‘박리다매’ 식으로 여러 사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한 명의 의뢰인에게 쏟는 시간과 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시장 전체적으로 변호의 질이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용자가 특정 변호사에게 연락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건을 의뢰하면 여기에 “내가 사건을 담당하고 싶다”고 변호사들이 신청하는 방식도 있다. 다만 이 ‘사건 의뢰하기’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용자가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사건을 맡고 싶은 변호사는 한 사건에 5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용자는 이들 중 자신의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건이 아니더라도 법률 자문, 강연, 세미나, 위촉, 임명, 집필, 기고, 연구 등 다른 업무를 의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에서는 변호사들의 징계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한변협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징계 전력을 검색해 보지 않는 이상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만 보는 이용자는 징계 내역을 모르고 사건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측은 “각 변호사 징계 내역은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엔터 특특

요즘 예능 접수하는 '연반인'들

<어휘 UP>

연반인: 연예인과 일반인을 합한 말로 '연예인 같은 일반인'이라는 뜻으로 쓰임.

관찰 예능: 제작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출연진에게 주어진 주제, 미션에 따라 벌어지는 상황을 오롯이 전달하는 예능 유형.

스핀오프 프로그램: 원작 프로그램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진 프로그램.

인플루언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많은 구독자를 이끌고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검증: 검사하고 증명함.

<발문>

1. 연반인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2개씩 적어보자.
2. PD 등 방송 제작자의 입장에서 연반인을 섭외할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초점] 연예인 관찰도 지겹더라...방송가 '직업 예능' 시대

시사교양 프로그램 KBS '체험 삶의 현장'은 '직업 예능'의 효시라 할 수 있다. 1993년부터 2012년까지 20년간 방송되며 시청자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았다.

이후 연예인들이 다른 직종의 삶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 tvN '오늘부터 출근'(2014), KBS2 '투명인간'(2015), JTBC '해볼라고'(2019), 채널A '비행기 타고 가요'(2019)는 모두 '체험 삶의 현장'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 했고, 결국 시청자의 큰 호응을 얻지 못 했다.

하지만 '직업 예능'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MBC '아무튼 출근!'(아무튼출근)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이 호응을 받고 있다. 또 강호동을 MC로 내세운 채널S의 '잡동산'도 인기를 타고 있다.

'직업 예능' 흥행 요인?... '연예인 체험' 버리고 '비연예인 삶 엿보기'로

이 프로그램들은 과거의 직업 예능과는 다르다. 연예인들의 체험에서 벗어나 일반인과 진짜 직장인의 출연을 통해 평범한 삶을 비춘다.

'아무튼 출근'을 연출한 정다히 PD는 "요즘 시청자들은 연예인들이 짜고 치는 듯한 겉핥기식 체험에 (재미를 못 느낀다.) 이제는 시청자의 수준이 높아져서 금세 (가미된 연출을) 눈치챈다. 이는 기존 직업 예능의 아쉬운 점이기도 하다. 저조차도 '나 혼자 산다', '진짜사나이' 등 연예인 관찰프로그램을 거쳤다. 그러다 보니 연예인을 관찰하는 게 지겨움이 살짝 생기더라. 실제 직업인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작 배경을 밝혔다.

'유 퀴즈'와 '아무튼 출근'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 이외에 대중에게 익숙치 않은 직업의 세계까지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큰 호응을 얻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유퀴즈' 게스트들은 아주 오랫동안 천착해서 일을 한 경우도 있고, 특별한 계기에 (다른 직업을 찾아) 삶을 반전한 분들도 있다. (이는) 직업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한 직업관에 대한 발상의 전환 계기를 줄 수 있다. 직업에 대해 전형적으로 가진 생각과 관념을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양-예능 간 균형과 섭외 과정, 최대 난제이자 지속성·지향점과 직결

다만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의 범주에서 직업을 다루는 만큼 시청자들

이 봐야 할 이유와 재미를 줘야 한다는 점은 제작진이 가지는 최대 난제다. 이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지속성과도 연결된다. 제작진이 예능적 연출을 더할수록, 프로그램의 제작의도와 달리 흘러가며 시청자의 반감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다희 PD는 "시청자들에게 '저 사람을 TV에서 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만족을 줘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을 지금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고민을 털어냈다.

'아무튼 출근'의 경우 현재로서는 '직업관'이 투철한 사람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형성을 벗어난 직장인의 모습도 보여주며 시청자의 흥미 요소를 더하고, 생각할 지점도 던져주겠다는 계획도 하고 있다.

정 PD는 "직업관이 뚜렷한 분들을 섭외한다. 무조건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어야 하더라. 그런분들은 엄청나게 직업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말했다. 또 "오늘(20일) 같은 경우는 '신(新)직장인'이라는 콘셉트로, '아웃라이어' 캐릭터가 나온다. (카드회사 대리 이동수씨는) 남자 직원인데 승진을 마다하고, 육아휴직을 간다. '안식월 제도'가 생기자마자 1호로 쓰고, 사장님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도 했다.

또 정다희 PD는 전화 인터뷰에서 섭외가 가장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는 '직업 예능'의 화두인 공익성과도 연관되는 만큼 프로그램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다. 전문가들은 '섭외' 부분이 프로그램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 PD는 "TV에 출연해서 기꺼이 자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일반인이다 보니 (섭외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방송계 관계자는 "'하트시그널' 출연진이 나온 건 화제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일반인이 예능에서 웃긴 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경우 비연예인을 통해) 들을 만한 얘기, 볼 만하고 신기한 그림들을 그려야 한다. 화제성 있을 만한 '연반인'('반연예인'이라는 뜻으로, 연예인 만큼 유명한 비연예인을 가리킴) 데려오고, 잘생기고 예쁜 출연자를 뽑는 게 우선이 될 수밖에

에 없다. 미디어가 스펙터클한 시대다. 아무래도 잔잔하게만 가서는 시청률과 수익성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교 스멜(냄새·느낌)과 예능에서 시청자가 기대하는 것들 사이에서 니시(niche·틈새) 포인트를 잡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 수익성 확보가 관건일 것 같다. PPL(방송에 자연스럽게 삽입되는 간접광고)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시청률과 화제성을 좇아야 할 것 같은데, 그 길이 험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진봉 교수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익성을 위해 '섭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유 퀴즈'는 아쉬운 점은 성공한 사람만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실패한 사람을 부르면 어떨까.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너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만 보여 주면, 시청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유퀴즈'의 본래 제작의도처럼 평범한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다. 일상에서 있는 사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는 부분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어쩌다출근'에 대해서는 출연진의 섭외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제작진 입장에서는 출연자를 찾을 때 재미적 요소를 고려할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출연자를 찾을 것이다. (이에 치중하다 보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섭외 부분이 좀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참여로 신청자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현식 평론가 역시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방송에서 다루는 직업이 기업의 홍보 협찬을 받는 경우, 작위적인 연출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자연스럽게 제작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